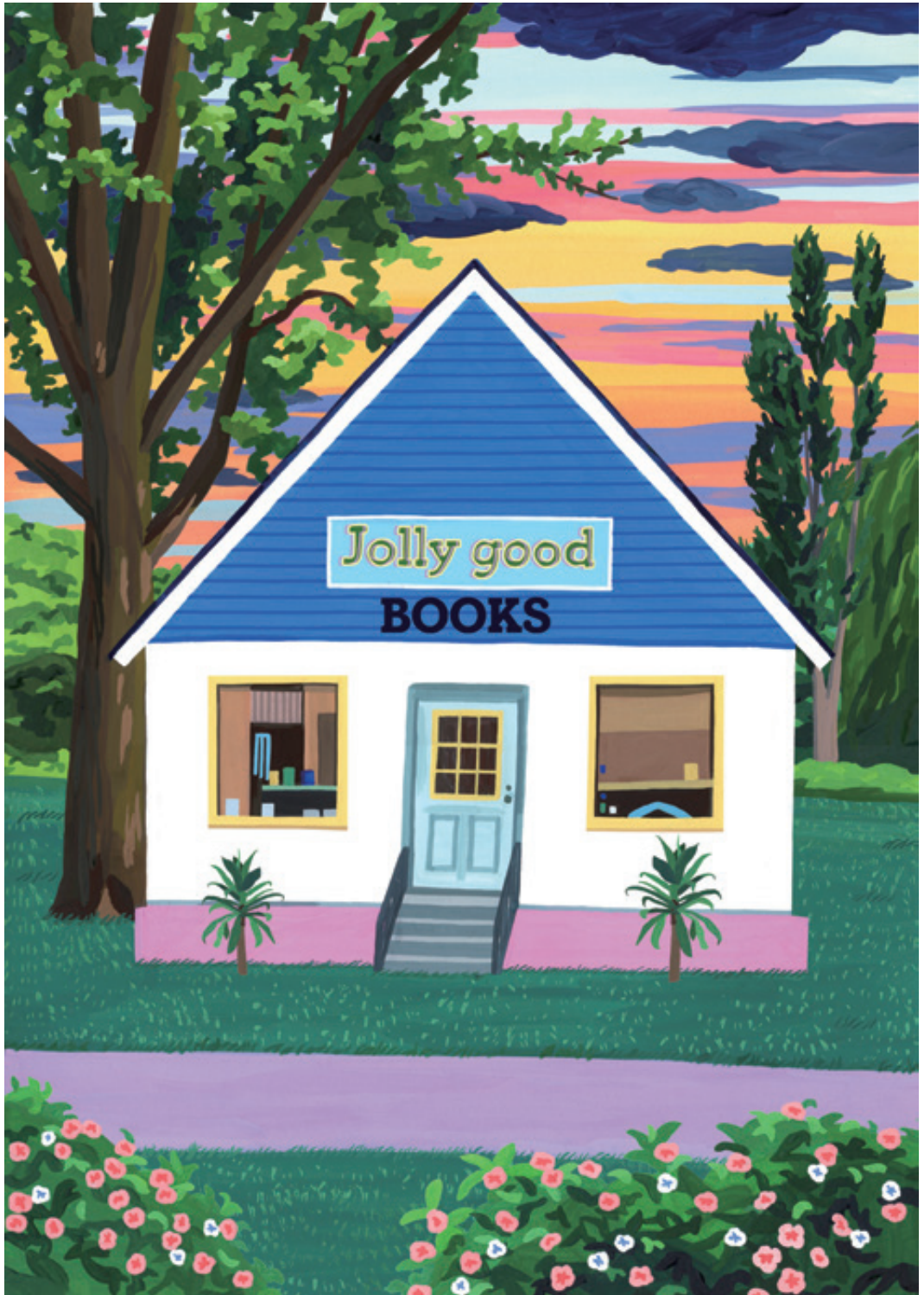


2024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화분



Interview

'나'와 '너', '우리'를 찾기 위한 여정
꿈의 무용단 '울트라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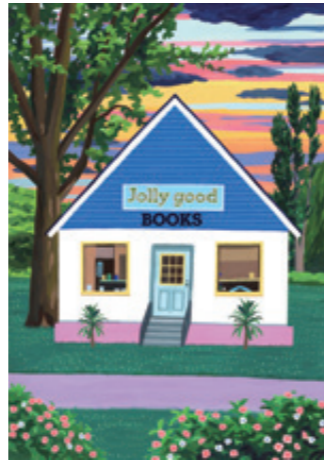
Column

시 문화예술 시리즈 II
시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Hello

대한민국 0.01%, 여러분의 취향저격하러 왔습니다
얼렁뚱땅 상점 이세화 대표

화성시 예술인과 함께하는 화분 표지



리곡, LEEGOC
Jolly good BOOKS
29.7X42 cm | poster paint on paper | 2023

작가노트

다양한 색상과 구도를 통해 공간 자체를 나만의 시각과 감각으로 재조합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본 소중한 것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려 남기고 싶습니다.

Jolly good은 "아주 좋아" 라는 뜻으로 2015년에 만들어 운영했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며 기억하고 싶어 Jolly good을 간판으로 건 다양한 가게의 풍경화와 오브제를 그렸습니다. 어떤 가게를 만들어볼까 상상하고 그리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filled with culture

문화로 채우다

“벌써 가을이 왔네” 하며 저 높이 올라간 하늘을 힐끔 바라보려 하는 찰나, 어느덧 겨울이란 녀석이 쓸쓸함을 외락 몰고 와버렸습니다. 덕분에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걱정 없어요. 문화라는 친구가 잠시 빈 제 마음을 설렘으로 다시 따뜻하게 채워줄 테니까요.

06 INTRO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김신아
편집본부장 김미라
편집팀장 유명임
기획·편집 원예빈
디자인·인쇄 경인M&B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전화 031-8015-8112
팩스 031-8015-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곳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0 THE 담다 문화를 담다

12 Focus

가을바람을 따라 시작되는 축제의 순간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가을축제

16 Interview

'나'와 '너', '우리'를 찾기 위한 여정
꿈의 무용단 '울트라 화성'

22 Column

시 문화예술 시리즈 II
시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4 Talk

내 취향대로 더 맛있게 먹자
주류 믹솔로지 트렌드

28 Live

〈작가의 선물가게〉참여작가 나정인·송재윤·안유선



34 THE 가다 그곳을 가다

36 Walk

작지만 고유하고 다정한 그곳
취향도 분위기도 특별한 화성의 동네책방

40 Archive

푸른 잔디 위, 공연은 계속된다
품앗이공연예술축제 리뷰

46 Preview

화성시문화재단 기획공연 프리뷰

48 Draw

화성의 가을을 기다리며
어반 스케치

50 Travel

수도권 어촌체험의 절대 강자,
백미리어촌체험마을

54 THE 하다 동행하다

56 Hello

대한민국 0.01%, 여러분의 취향저격하러 왔습니다.
열령동땅 상점 이세화 대표

60 People

당신의 책장 속 최애는?

62 List

시니어를 위한 여가추천 리스트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돌안돌안 인형극단

66 Culture & Issue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소식

70 Letter

독자엽서

71 Place

배포처 및 구독 안내



당신의 일상을 채우는 건 무엇인가요?
화성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선물인
엄마, 아빠

박승현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엄마, 아빠
늘 변함 없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어른이 되어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22개월 된 소중한
우리 딸 수지

김지수

저희 부부의 일상을 가득 채워주는
소중한 딸 '수지'죠.
수지가 태어난 뒤 많은 것이 바뀌었고,
우주라는 공간 그 이상의 커다란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과 가족

정명기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사로, 직장(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삶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일과 후에는 마도면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거나 복지관에 마련된 당구와 헬스 등 심신을 수련하는데, 그 또한 제 삶에 있어 행복을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의 생일 맞이해 함께 나들이를 나와준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삶을 채워주는 에너지이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박태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예상치 못했던 벽찬 일정을 소화하느라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또한 제 일상을 채우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다도와 인센스스틱으로 채우는 잠깐의 쉼

박예슬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들로 인해 정리가 필요할 때면, 어릴 적부터 즐겨왔던 취미를 꺼내 추억을 더듬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다도와 인센스스틱이 그 도구이자 친구가 되어주는데, 이러한 잠시의 쉼이 저의 일상을 채워주는 한 가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센스틱 향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한 뒤, 차 한 모금 할 수 있는 그 순간만큼 저의 일상을 채워주는 것이 또 있을까 싶어요.



바람, 향기, 그리고 사랑

배유리

치열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의 향을 맡고 바람을 느끼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 더 좋구요.

THE 담다

문화를 담다

12

Focus

가을바람을 따라 시작되는 축제의 순간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가을축제

16

Interview

'나'와 '너', '우리'를 찾기 위한 여정
꿈의 무용단 '울트라 화성'

22

Column

AI 문화예술 시리즈 II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4

Talk

내 취향대로 더 맛있게 먹자
주류 믹솔로지 트렌드

28

Live

〈작가의 선물가게〉참여작가
나정인·송재윤·안유선

가을바람을 따라 시작되는
축제의 순간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가을축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거리는 설렘으로 가득해집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특별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가을이면 더욱 빛나는 화성에서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며 역사 속으로 떠나는 '정조효문화제'부터, 밤하늘의 달빛과 별빛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루나 빛 축제'까지 다양한 축제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꽃 핀 천하의 명당
'화성시'에서 펼쳐지는 역사문화축제

2024 정조효문화제 · 정조대왕능행차

정조대왕의 효심이 꽃 핀 천하의 명당이자 효의 도시인 '화성시'에서 펼쳐지는 대표 역사문화축제 '정조효문화제'가 10월 5일(토)~6일(일)까지 정조효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정조대왕의 숙원(宿願: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조선 최고 길지로 이름난 화성시 용릉으로 이전하는 효의 대서사시를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는 지난해까지 고증에 따라 화성-수원 경계에서 재현했지만 올해는 동탄에서 출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행차 구간으로 구성되었다. 약 700여 명의 대규모 행렬이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출발하여 정조효공원까지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능행차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었다. 또한 메인 행사장에서는 정조의 효심이 깃든 화성시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정조대왕의 숙원이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조선 최고 길지로 이름난 화성시 용릉으로 이전하는 효의 대서사시를 재현하는 '현릉원 천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양로연의', 조선시대 과거시험(무과별시)을 재현하는 '마상무예', 정조의 마음을 독백과 무용으로 나타낸 창작극까지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메인 축제장 내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일정 2024. 10. 5.(토)~10. 6.(일)

장소 정조효공원, 만년제 및 용건릉, 용주사 일원

문의 화성시문화재단 www.hct.or.kr

상상의 영역인 우주를
축제로 실현하다

2024 화성 루나 빛 축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 백만 특례시 출범을 주제로 한 '2024 화성 루나 빛 축제'가 화성시민들을 찾는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화성 루나 빛 축제'는 우주의 빛 달(만천명월 형상화)과 별을 콘셉트로 하는 축제 콘텐츠들로 구성된다.

빛 소재 공연 및 체험, 루나쇼, DJ파티, 드론쇼, 빛의 워터파크다 존 운영으로 화성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된 '오르:빛 워터 파고다'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축제 개최 전 사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일정 2024. 10. 26.(토)

장소 동탄호수공원 운담원 일원
※ 10. 18.(금) ~ 10. 26.(토) 전시 콘텐츠[오르:빛 워터파크다 존] 운영 예정

문의 화성시문화재단 www.hcf.or.kr





‘나’와 ‘너’,
‘우리’를 찾기 위한 여정

꿈의 무용단 ‘울트라 화성’

엘 시스템아는 음악을 위한 사회 활동으로 불리는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2010년, 이 엘 시스템아 사업을 한국적으로 변형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형태의 사업을 무용 분야로 확대한 ‘꿈의 무용단 사업’이 시작되었고, (재)화성시문화재단 역시 지난 7월, ‘울트라 화성’이라는 이름의 꿈의 무용단을 발족했다. 꿈의 무용단은 7월부터 총 30회의 교육을 진행하며 12월 12일, 마지막 회차에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결과발표회 공연을 가진다. 기나긴 여정의 절반 가량을 달려온 꿈의 무용단은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밝은 예술감독과 무용단 단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글. 김민진 사진. 배호성

꿈의 무용단 이름이 '울트라 화성'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울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단원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저는 물론이고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모두가 춤과 무용에 대한 아이들의 간절함과 에너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성인을 능가하는 열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게서 느낀 방대한 에너지를 표현할 단어를 고민하던 중에 한 선생님이 울트라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이 단어가 그대로 무용단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금 만화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 단원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서 현대무용을 전공했고,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대무용 전공자가 어린이 무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창단한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의 모토이자, 제가 추구하는 예술은 삶과 춤이 연결되어 춤이 삶이 되고 삶이 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춤과 예술에 아이들의 시선이 담기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곧 제가 예술가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이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꿈의 무용단은 매회 다른 주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매주 주제에서 '너', '나',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수업의 기획의도와 주제 설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일까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예술에 있어서, 아니, 어찌 보면 인간이 존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관계하는 거대한 철학이자 주제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항상 누군가와 교류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감정과 마음들을 감각적으로 느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정, 믿음, 협동, 존중, 용기, 행복, 약속을 주제로 하는 감각적인 활동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7월부터 수업을 시작해 이제 15회차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딱 절반 정도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단원들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감독님의 개인적인 소회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받고 활동을 하는 분위기라 무용단 관련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단원들이 가장 체감하는 변화는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체력과 유연성이 좋아졌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달라졌고, 체력이나 유연성, 근력이 좋아졌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창의적인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교육 시간이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인데, 초등학교 4~6학년들이 주말에 무용을 배우러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도 길어서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낙오한 단원 없이 무사히 수업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서 매 순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2월 12일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어떤 공연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공연에는 아이들이 30회차 동안 느끼고 공감한 감정들이 정돈되어 올라갈 겁니다. 단원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무대지만 꿈의 무용단의 중심이 되는 '나', '너', '우리'라는 주제는 단원들과 관객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하는 소재입니다. 간혹, 아이들과 어른의 세계를 구분해서 정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른의 세계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단원들과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은 국내에서 어린이 무용 쪽으로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단원들을 챙겨주고 있어서 항상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싶어요. 그리고 단원들에게는 제가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규칙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서 제가 총대를 댔습니다. 덕분에 교육 내내 무뚝뚝한 얼굴로 소리치는 일이 많았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단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호 화분의 주제가 '문화로 채우다'입니다.
감독님이 생각하는 문화와 예술의 힘은 무엇일까요?

예술과 문화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작품이나 예술을 봐도 누군가는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싫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예술이나 문화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선택이예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술과 문화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를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은 예술과 문화로만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예술과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알려주고 춤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용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안도경 예전부터 리듬체조를 다니고 있었는데, 무용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리듬체조랑 무용이 달라서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어릴 적부터 무대에 서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엄마가 꿈의 무용단을 알게 되어서 추천해줬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친절히 대해 주시고, 수업 분위기도 편해서 금방 적응했습니다.

박제연 방송계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춤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무용단에 참여했습니다. 친구들이 워낙 춤도 잘 추고 동작도 곧잘 따라해서 처음에는 따라가기가 버거웠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 줘서 다행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나는 수업이 있다면 하나씩 말해주세요?**

안도경 해진 선생님이랑 같이 달걀 놀이한 게 제일 좋았어요.

홍가현 영래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현대무용 수업이요! 지금까지 현대무용 같은 춤은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해봐서 새롭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이수아 스트레칭한 게 기억에 남아요, 힘들지만 재밌었어요.

김지율 물구나무 서기처럼 테크닉이 필요한 활동이 인상깊었어요, 원래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엄청 노력하고 연습해서 해낸 것이다 보니 더 좋았습니다.

박제연 저도 물구나무서고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M자로 돌리는 것처럼 몸을 쓰는 활동이 재밌었어요, 뭔가 제가 더 유연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12월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대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동작이 있을까요?**

홍가현 개인적으로 노래를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요, 잠깐이라도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수 없다면 나중에 다른 무대에서라도 꼭 노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수아 특별한 동작보다는 더 커진 자신감을 보여 주고 싶어요, 선생님들과 부모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변했고 멋있어졌는지, 당당한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 주고 싶습니다.

김지율 7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서 대회나 공연에도 많이 서봤는데요, 이번 공연은 조금 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수업을 받으면서 테크닉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평소 즐기는 문화생활, 혹은
예술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안도경 어릴 때부터 리듬체조를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회도 나가봤고, 방송 댄스도 했습니다, 꿈의 무용단도 좀 더 다양한 예술을 접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홍가현 저는 예전에 한국 무용을 조금 했었고, 지금은 민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이나 노래 관련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박제연 어릴 때부터 문화생활이나 예술도 엄청 많이 즐겼어요, 합창단도 자주 다니고 동요대회도 나가봤습니다,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어요! 가족들이랑은 평소에 영화도 보고 같이 책도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안도경 친구들에게는 같이 재밌게 수업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재밌는 수업, 신박한 수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가현 지금처럼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좋은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고 멋지고 큰 무대에 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아 스스로에게는 정말 대단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토닥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웃어주시고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고 싶어요.

김지율 저랑 같이 해주고 도와주고 친해진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선생님들께는 이런 멋진 수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다치지 말고 잘 마무리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제연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도 꾸준히 나와줘서 고마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저도 칭찬하고 대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AI 문화예술 시리즈 II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AI가 창작한 작품을 만나 볼 기회가 많다. ChatGPT, GitHub Copilot, Stable Diffusion 등과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문자 명령을 여러 차례 공들여 입력하면 독특한 작품이 나온다. AI가 만든 곡으로 데뷔한 가수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AI 도움을 받아 만든 그림이나 곡으로 공모전에서 수상도 한다. 그러나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예술인들은 AI가 등장하면서 설 자리를 잃을까 걱정이다. 또한 자신들의 작품을 AI 기업이 학습에 이용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 최근 출판사와 언론사들은 AI 모델 학습을 위해 간행물을 데이터로 사용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I가 만들어낸 작품을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연 우리는 AI 창작물을 보호해야 할까?

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AI 문화예술 시리즈 I
AI가 만들어낸 예술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나요?

올 5월, 서울고등법원은 '다부스(DABUS)'라는 AI를 발명자로 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서 "현재의 특허법 규정만으로 AI를 발명자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라고 판시했다.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도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즉 인간의 개입이 없는 AI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2년 7월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에 대해 그간 지급해 오던 저작권료를 중단했다. 이 곡이 사람이 아닌 '이봄(EvoM)'이라는 AI가 작곡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한 작가는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AI를 활용해 그린 그림에 글을 덧붙여 인터넷 소설을 발행했는데,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을 허가했다. A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부정했지만, 소설 전체를 구성하는 소재의 선정, 구성, 배열 등은 작가가 직접 선택하고 집필한 것으로 저작권을 인정했다. AI 보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을 보호하는 입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AI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AI 창작물 보호에는 찬반양론이 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AI 창작물이 인간에게 편익과 효용성을 줄 뿐 아니라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견은 대량 창작으로 AI 개발자가 지식재산을 독점할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국제적 정합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최근 AI 창작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AI 전문가와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AI 창작물을 보호하는 경우 그 보호 수준을 현행 인간 저작물의 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고, 그 권리는 AI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AI 기업과 그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우리가 AI 창작물을 보호하게 되면 인간의 창작물과 AI 창작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올해 EUGA 제정한 AI 법률보면 AI 기업은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고, AI를 학습시키면서 이용한 콘텐츠를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성한 콘텐츠에 AI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틱톡(TikTok)은 콘텐츠플랫폼 중 처음으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준수 기준을 만들고, 크리에이터에게 AI를 활용해 생성한 콘텐츠에 'AI 라벨'을 자발적으로 붙이도록 권고했다. 인간 콘텐츠와 AI 콘텐츠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제도'는 AI 창작물 보호에서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물을 허위로 저작권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저작권 발생에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등록과 달리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록 과정에서 AI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속이는 경우 그 식별이 쉽지 않다. AI 창작이 보편화된 오늘날 허위 등록이 증가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허위 등록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AI는 너무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AI 창작물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해서 수수료를 낸 것만 보호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의 출현은 창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지만 동시에 문화 예술계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AI 창작은 시대적 대세이지만 기존 예술인과의 갈등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예술인과 AI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한 때이다.

내 취향대로 더 맛있게 먹자

주류 믹솔로지 트렌드

최근 젊은 층의 주류 소비 형태를 보면 저도수 술을 즐기는 것 외에도 개인의 취향을 강조하는 믹솔로지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다. 믹솔로지란 다양한 종류의 술이나 음료를 섞어 만든 칵테일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바텐더가 제안하는 칵테일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젊은 층이 홈파티에서 즐기는 하이볼이나 진토닉 같은 개인 맞춤형 칵테일이 인기다. 믹솔로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소맥'이 믹솔로지의 원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소주와 맥주를 취향에 맞게 비율을 조절해 섞어 마시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믹솔로지의 일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이학박사





취향에 맞춘 맞춤형 칵테일, 믹솔로지

팬데믹 이후, 집에서 즐기는 홈술 및 홈파티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즐기는 재미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류와 믹서, 시럽, 장식 등이 포함된 칵테일 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믹솔로지 레시피 영상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위스키를 기본으로 한 저도수의 하이볼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하이볼 레시피가 만들어졌다. 올 여름에는 진토닉이 유행에 합류했다. 진토닉은 진에 토닉워터를 첨가하고 레몬을 올리면 완성된다. 레시피도 간단해 집에서도 별다른 도구의 도움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홈파티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이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존에 판매되는 술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닌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를 가지고 다양한 믹솔로지를 만들고 즐기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무알콜 믹솔로지의 부상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소버 큐리어스'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무알코올 맥주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12년 13억 원 정도이던 국내 무알코올 맥주시장'이 21년 415억 원으로 대폭 성장했고, 올해에는 700억 원, 2027년엔 1,000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즘 젊은 층이 찾는 식당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하이볼이 판매되며, 무알콜 하이볼을 제공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운전을 해야 하거나 알코올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음주 경험을 제공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무알콜 믹솔로지 주류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주 믹솔로지의 등장

최근 전통주에 대한 젊은 층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통주를 이용한 믹솔로지도 주목 받고 있다. 다양한 전통주 행사에서 웰컴 드링크로 전통주 칵테일을 선보이면 참석자들의 반응은 늘 뜨겁다.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칵테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양조장들은 다양한 술들의 특징을 살린 칵테일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진토닉이나 모히토와 같은 외국 칵테일 레시피를 기본으로 전통주 종류만 바꾸는 경우가 많기에 칵테일들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저도수 술 소비문화의 확산 추세를 본다면, 증류식 소주를 이용한 칵테일 제조법 제공은 전통주 소비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양조장들은 자기만의 칵테일 레시피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채롭고 풍부한 주류 문화

오늘날 믹솔로지 트렌드는 단순히 주류를 섞어 마시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를 지향하며,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칵테일은 이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예술 작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술 또한 개인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과거 회식 및 단체 음주 문화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내 취향 대로 더 맛있게 즐기자"는 개인 음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주류 문화의 변화 속에서 믹솔로지는 우리의 주류 문화를 더욱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전시회

〈작가의 선물가게〉 참여작가 나정인·송재윤·안유선

9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 아트스페이스와 아트스퀘어에서 화성시 중견작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전 〈작가의 선물가게〉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개성 넘치는 작가들이 참여하는 단체전으로, 중견과 신진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보인다. 이번에 만날 주인공은 나정인, 송재윤, 안유선 3인의 중견작가들로 이들의 작업실을 재현한 '작가의 방'과 '특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선물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글. 김민진 사진. 배호성

THE 방
문화를 담다



왼쪽부터 안유선·송재윤·나정인 작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유선 안녕하세요. 저는 판화 작업을 하고 있는 안유선입니다. 판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하나의 판을 가지고 그 판을 계속 깎아가면서 중첩된 레이어를 통해 지층과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윤 저는 동양화를 전공했고 현재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송재윤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로요, 요즘에는 예술에서도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전통 동양화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가루랑 물감이 섞인 안료를 부수고 뿌려서 색을 낸 뒤, 그걸로 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정인 저는 도예를 전공했고 도예와 색연필로 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와 평면으로 표현된 나무와 식물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성에는 언제부터 거주하고 계신가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화성만의 독특한 개성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정인 저는 원래 고향이 수원이었습니다. 20살 때 병역으로 이사 와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서 동탄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화성은 일단 주변에 자연이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치동천 수변을 걷고 있는데요, 오리 가족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그런 경험이 너무 행복해요.

송재윤 저도 고향이 수원입니다. 2008년에 부모님이 화성 봉담 쪽으로 이사오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화성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허허벌판에 아파트 하나만 딱 들어온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안유선 분당에 살다가 2010년에 결혼을 하면서 화성에서 살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만 생활하다가 아무런 연구도 없는 화성에 오니까 처음에는 도시 전체가 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게는 낯선 곳이지만, 이곳에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화성이 고향이잖아요. 내 아이들의 고향이 될 곳이니 나도 화성에 대해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독서모임 선생님들과 함께 화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탐방했습니다. 화성은 생생한 자연과 도심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정말 독특한 도시입니다. 경기도에 두 개 밖에 없는 국가지질공원이 있고 제부도나 공평항, 우음도 등 언제 방문해도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명소가 많아 관광하기에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질공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고마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 분의 작가님께 있어서 작품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와 그 주제를 떠올리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송재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만남의 횟수나 유대감이 중첩되어 쌓여가면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저는 이러한 관계 형성을 중첩 행위 자체를 통해서 표현하려 했습니다. 제가 전공한 미술이 동양화라 동양적인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은 관계에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 믿음과 신뢰를 표현했고, 물은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지혜로움을 의미합니다. 사슴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자들을 표현하고 있죠. 제가 관계에 집중하게 된 건 사람에게서 얻은 상처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베풀만큼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는데



사회에서는 이런 당연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회복하기 힘든 관계가 있고, 반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를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인 저는 상실과 치유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의 시작은 엄마의 상실과 함께합니다. 2019년 5월에 친정 엄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는데, 겉으로는 많이 숨기고 있었고 괜찮아진 척 했지만, 내면에서는 너무나 큰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치유해 준 것이 식물과 자연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 고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문명이나 도시의 흔적이 거의 없는 고성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을 바라보며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에 외로이 떠 있는 오징어 배, 걸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풀내음, 그 모든 것들이 제 상처를 보듬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 엄마가 남기고 간 식물들을 키우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식물들에게서 느낀 위안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유선 제 작품의 가장 큰 주제는 생명성과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유기성입니다. 저는 미술과를 졸업하고 석사·박사까지 공부를 했지만,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작업을 상당부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그렇고 미술을 하려면 준비된 상태에서 또는 정제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그리는 선 하나하나가 예술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영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이와 함께 과학관을 갔을 때, 예술의 유기성을 절감했습니다. 과학관에는 식물 화석이나 지층을 예쁘게 꾸며놓은 곳이 많아요. 아이와 함께 지층을 보고 있는데, 불현듯 이 지층 하나하나가 모두 판인데, 나는 왜 억지로 판을 만들어 그려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판화와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작가의 방>에서 진행하는 특별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신 걸로 압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신가요?

안유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버전과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눠놓았는데요. 참가자들이 피카소가 좋아했던 리노 컷이라는 판화를 사용해서 12명이 각자의 달력을 만들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판으로 찍어갈 수 있는 자화상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송재윤 밀작업이 된 캔버스 위에 참가자들이 추상적인 산과 물, 사슴을 자유롭게 그려볼 겁니다. 그리기 전에 작품에 표현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각자가 해석한 관계를 자유롭게 그릴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너만의 산수화 한 점씩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정인 친숙한 나뭇잎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작품을 도자기로 만들겁니다. 나뭇잎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이라도 모두 다르게 생겼거든요. 나뭇잎을 똑같이 찍어내지 않고 스스로 스케치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나뭇잎을 만들어볼 겁니다. 만든 나뭇잎은 실용성 있게 도자기로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줄 예정이에요.

이번 호 화분의 주제가 '문화로 채우다'입니다.

세 분 작가님이 생각하는 문화와 예술의 힘은 무엇인가요?

나정인 예술은 자기 내면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SNS나 블로그같은 소셜 미디어가 엄청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는 항상 좋은 것, 예쁜 것만 올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항상 잘 나온 사진, 그럴듯한 이야기만 SNS에 올리려고 하니까요. 이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는 경험이 많아지면 역설적으로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예술입니다. 꼭 그림이 아니어도 좋아요. 예술은 자유니까요. 휴이나 그림, 음악 등 무엇이 되었든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유선 제가 만든 텀블러에도 있는 문구인데요. 예술은 누군가에게 내재된 특별한 힘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는 저마다의 예술을 품고 있어요. 물론 내면의 예술을 꺼내는 작업은 정말 어렵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에 예술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안식, 혹은 여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술을 찾게 됩니다. 힘겨운 일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술입니다. 악기 연주나 그림, 하다못해 휴이나 나무, 공기를 만지는 행위까지. 다른 작가님들이 말씀하셨듯, 자신이 예술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활동이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술을 하면서 본인에게 남게 되는, 혹은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술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송재운 작가님들이 말씀하셨듯, 예술은 자기 표현의 수단입니다. 작가는 이 표현이 좀 더 잘 전달되도록 하는 사람들인데요. 내면의 예술을 표현해서 시각화하는 방식은 어렵지만, 예술을 소비하는 대중들은 최대한 쉽게 예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의 문턱 자체가 낮아져야 해요. 예술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슬리퍼 끌고 산책하다가 전시회를 구경할 수 있고, 친구들과 축제를 가는 것처럼 예술 페어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숨 가쁘게 달려가기 바쁘잖아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잠깐의 휴식과 여유, 풍요를 전달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자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찾아올 관람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정인 훌륭한 작가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평소 베일에 쌓여 있는 작가의 방을 본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회가 관람객 분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길 바라고 전시회를 계기로 예술은 어려운 게 아닌 재밌는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안유선 작품 전시도 볼 수 있고, 작가의 방도 볼 수 있고, 여러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이름 그대로 관람객 여러분의 삶에 선물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운 창작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이렇게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작가들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고 <작가의 방>, <작가의 선물가게>가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작가의 선물가게> 중견작가 기획전

전시기간 2024. 9. 24.(화)~2024. 11. 10.(일)
*월요일, 공휴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전시장소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아트스퀘어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관련문의 031-290-4605

<작가의 선물가게> 신진작가 기획전

전시기간 2024. 10. 15.(화)~12. 5.(목)
*매주 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전시장소 화성 열린 문화예술 공간 1전시실
(화성시 동탄대로 5길 21, 라크몽 B동 3층)

관련문의 031-378-5026

THE 가다

그곳을 가다

36

Walk

작지만 고유하고 다정한 그곳
취향도 분위기도 특별한 화성의 동네책방

40

Archive

푸른 잔디 위, 공연은 계속된다
품앗이공연예술축제 리뷰

46

Preview

화성시문화재단 기획공연 프리뷰

48

Draw

화성의 가을을 기다리며
어반 스케치

50

Travel

수도권 어촌체험의 절대 강자,
백미리어촌체험마을

작지만 고유하고
다정한 그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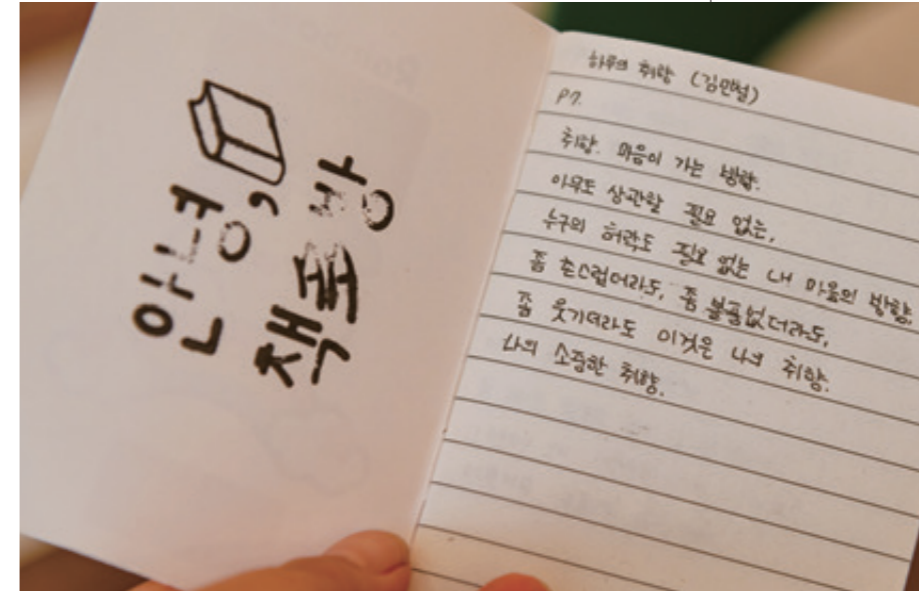
취향도 분위기도 특별한 화성의 동네책방

‘책방을 간다’는 것은 어쩌면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 가끔은 나를 낯선 곳에 데려다 놓는 일. 그래서 책방은 내 보통날의 일상을 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일, 그러다 한두 번 씩은 ‘내가 오래 기다려온 문장을 만나게도’ 될 곳.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책한잔
하실래요?
안녕책다방

#북카페
#독서모임
#하이볼



가끔은 누군가 내게 안부를 물어주었으면 좋겠다. “안녕하냐?”고, “안녕!”이라는 낱말 하나로 기꺼이 다가와 주는 날도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무척대고 반가웠다. 책방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호기롭게 건넬 수 있어서, 아니 사실은, 허끝을 살짝 깨물었다 놓을 때마다 벌어지듯 톡 발음되는 ‘안녕’이란 말이 다정해서, 몇 번을 되풀이해 말할 것일지도 모르겠다.

안녕책다방은 그런 ‘안녕’이란 낱말을 쏙 빼닮아 다정한 면이 참 많은 곳이다. ‘안녕동에 있어서, 책이 많은 방(冊多)이어서, 또 음료와 디저트가 있는 곳(茶房)이어서 안녕책다방’이기도 하다는 주인장의 귀뜸에도, 책방은 내내 다정해서 참 따뜻했다. 여기엔 커피 한 잔 혹은 하이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책방의 편안한 분위기가 한몫했다. 책을 구매하지 않고도 마음이 끌리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도록 열람용 도서 코너를 따로 마련해 둔 것. 덕분에 머물고 싶은 풍경을 배경으로 오래 쉬어가기가 좋다.

책방의 서가를 가득 채운 컬러풀한 큐레이션도 주인장의 숨은 배려다.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깜짝 선물처럼 만나게 해주고픈, 그러다 누군가는 실제로 ‘내가 기다린 문장’을 운명처럼 만나기도 했다. 어지러운 잡념들을 떨쳐 버리고 싶을 때, 나만의 조용한 아지트가 필요할 때 찾으면, 바깥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몰입하는 잠시를 누릴 수 있겠다.

책방 이용 팁

오픈	2023년 12월
문의	0507-1494-1239
주소	경기 화성시 장조4로 14 상가동 1층 5호
영업시간	월~목 12:00~20:00, 금 15:00~22:00, 토 12:00~17:00, 매주 일 휴무
인스타그램	@hello_bookcafe/
기타	테이크아웃 할인

- * 북카페이자 술 파는 독립서점
- * 150여 권 이상의 열람 가능 도서 비치
- * ‘화목한 독서모임’ 및 필사모임 운영
- * 북토크, 캘리그래피 클래스 등 비상시적 운영
- * 책 구매 시 굿즈 증정
- * 위스키와 함께 하는 (저녁시간) 독서모임 운영



오후의 고요를 팝니다 모모책방

#무포장가게
#수채화책갈피
#다양성



마치 의도한 것처럼 고요하더라란 생각을 했다. 책을 읽다 말고 불현듯, 그래서 한참이나 귀를 쫑긋거렸다. 계절이 지나는 소리가 들리면 잠시 아는 체라도 할까 하여. 모모책방은 머무는 내 그토록 고요했다. 집에 돌아와 한 줄의 문장을 적었다. 그곳에서 품고 온 책의 뽀뽀한 모서리에 '느슨하고 고요한, 아늑하고 다정한'이라고, 고양이 사장님 '모모'의 얼굴 스탬프 이편에다 고양이 '꾹꾹이하듯' 한 자 한 자 눌러 썼다. 모모책방의 고요한 한때를 그렇게 봉인했다.

책방을 좋아한다. 누군가의 취향이 고스란할수록 더 크게 끌린다. 그런 면에서 모모책방은 유독 끌렸다. 책방지기의 철학과 취향이 듬뿍 묻어나, 그의 시선을 따라 걷는 일만으로도 묘하게 설렜다. 그 시선 끝에 걸린 모모책방의 도드라진 컬러는 다양성과 공존이 었다. 문학과 비문학이 적절하게 섞여 큐레이션 되어 있었고, 시각 디자이너의 인목으로 고른 디자인서적부터 인권·페미니즘·환경·평등·평화 등 대중의 시선에 잘 걸리지 않는 책들까지 빼곡했다. 그 중 한 권을 신중하게 골라 계산대에 올렸다. 책을 포장하는 대신 예쁜 책갈피 하나를 즉석에서 그려 주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포장지 대신이라며...

그렇게 가을 오후, 모모책방에서, 세상 하나 뿐인 '책갈피' 하나가 내 집까지 따라 왔다.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이었다.

책방 이용 팁

오픈 2018년(2020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
문의 0507-1307-5084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오래3길 7 1층 상가
영업시간 화 13:00~17:30
수~금 10:00~17:30
매주 토~월 휴무
인스타그램 @momo__books
기타 반려동물 동반 가능

- * 무포장가게로 운영되는 독립서점
- * 다양한 큐레이션이 매력
- * 무포장 구매 시 수제 수채화 책갈피 증정
- * '조금 느린 책 배달' 서비스 제공
- * 엽서 만들기 프로그램 상시 운영
- * 북토크, 드로잉 클래스, 그림책 만들기 워크숍 등 비상시적 운영



푸른 잔디 위, 공연은 계속된다

품앗이공연예술축제 리뷰

푸른 잔디 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화성시 우정읍의 민들레연극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이했다.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전통, 환경,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해마다 품앗이공연예술축제를 만날 수 있는 민들레연극마을은 자연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잔디마당과 사랑채극장, 별극장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은 보는 내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축제는 그야말로 '함께하는 축제'다.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연극, 음악, 무용 공연들은 마치 숲 속에서 펼쳐지는 작은 마법과 같다.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을 즐기며, 아이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잊고 있던 동심을 다시 찾게 된다.

올해는 특히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제 문화 교류를 목표로, 화성시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는 캐나다 Puzzle Theatre의 〈Woods〉, 인도 Tram Arts Trust의 〈Maati Katha(Earth Stories)〉 등 다양한 공연과 방정환 프로젝트, 동요 100주년 기념 공연이 포함되었고, '세계문화체험'에서는 세계 의상, 악기, 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김원기 작가의 '자연 설치미술'과 김중근의 풀피리 공연도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내년에 17회를 맞이하는 2025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민들레연극마을과 반석아트홀 두 곳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예술과 자연이 선사하는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품앗이공연예술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가족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화성시문화재단 기획공연 프리뷰

문의 및 예매

화성시문화재단 1588-5234 www.hct.or.kr
인터파크티켓 1544-1555

공연정보 1588-5234

'2세대 국민아이돌×대한민국 대표 재즈밴드'의 재즈 콜라보 금요일N재즈 선예&프렐류드

금요일 퇴근길, 지쳐있는 마음을 달래줄 매력적인 재즈 선율에 빠져보자! 2세대 국민 아이돌 원더걸스의 원년멤버 선예가 대한민국 대표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함께 재즈 가수로 돌아왔다. 섬세하고 리드미컬하면서도 파워풀한 성량으로 사랑을 받았던 메인보컬 선예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보자!



일시 2024. 10. 25(금) 19:30 가격 전석 5만원
장소 반석아트홀 대상 초등학생 이상

블루스의 역사, 살아있는 전설 신춘블루스 콘서트! 신춘블루스

1986년 결성한 명불허전 국내 최장수 블루스 밴드 신춘블루스가 화성아트홀을 찾아온다. 원년멤버인 엄인호를 주축으로 수많은 객원보컬들과 함께한 신춘블루스는 여전히 그들만의 색채를 잃지 않고 노래로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한영애, 정경화 등 국내를 대표하는 여성 보컬들과 함께한 신춘블루스, 이번 공연에는 싱어게인3에서 25호 가수로 출연해 압도적인 가창력과 감성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성희가 메인 보컬로 무대에 선다. 2014년 신춘블루스에 합류하여 수많은 무대를 함께 해온 만큼 더 깊어진 감성으로 가을의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거리에 서서', '아쉬움', '붉은노을', '그대 없는 거리', '언젠가는'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일시 2024. 10. 26(토) 17:00 가격 R석 5만원/S석 3만원
장소 화성아트홀 대상 만 7세 이상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모험! 인형극×그림자극 루루섬의 비밀

발명가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루루섬에서 지내게 된 소녀 하루, 휴대폰도 잡히지 않고 지루하기만 한데... 어느 날 루루섬에 해적들이 숨어들며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는 하루! 하루는 할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을까? 해적들이 찾는 루루섬의 비밀은 무엇일까? 국내 대표 인형극단 예술무대산과 73년 전통의 일본 그림자 전문극단 카카시좌의 공동제작으로 더 환상적이고 섬세해진 루루섬의 비밀을 기대해보자!



일시 2024. 10. 27(일) 14:00/17:00 가격 전석 2만원
장소 누림아트홀 대상 36개월 이상

원조 콩쿠르 여제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한국인 최초 입상, 미국 윌리엄 카펠 국제 콩쿠르 우승,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입상 등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반석아트홀을 찾는다. 최근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리사이틀을 선보이는데 이어, 인천시향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을 하루에 완주하며 저력을 드러낸 그는 2023년 1월 피아노 앞에 앉은 50여 년의 세월 동안 얻은 인생 내공의 에세이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화려한 스케일과 호쾌한 타건, 기교를 뛰어넘은 심오함과 섬세함으로 청중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백혜선의 무대를 주목해보자!



일시 2024. 12. 14(토) 16:00 가격 R석 4만원/S석 3만원
장소 반석아트홀 대상 7세 이상

※ 상기 공연 일정 및 운영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화성의 가을을 기다리며 어반 스케치 Urban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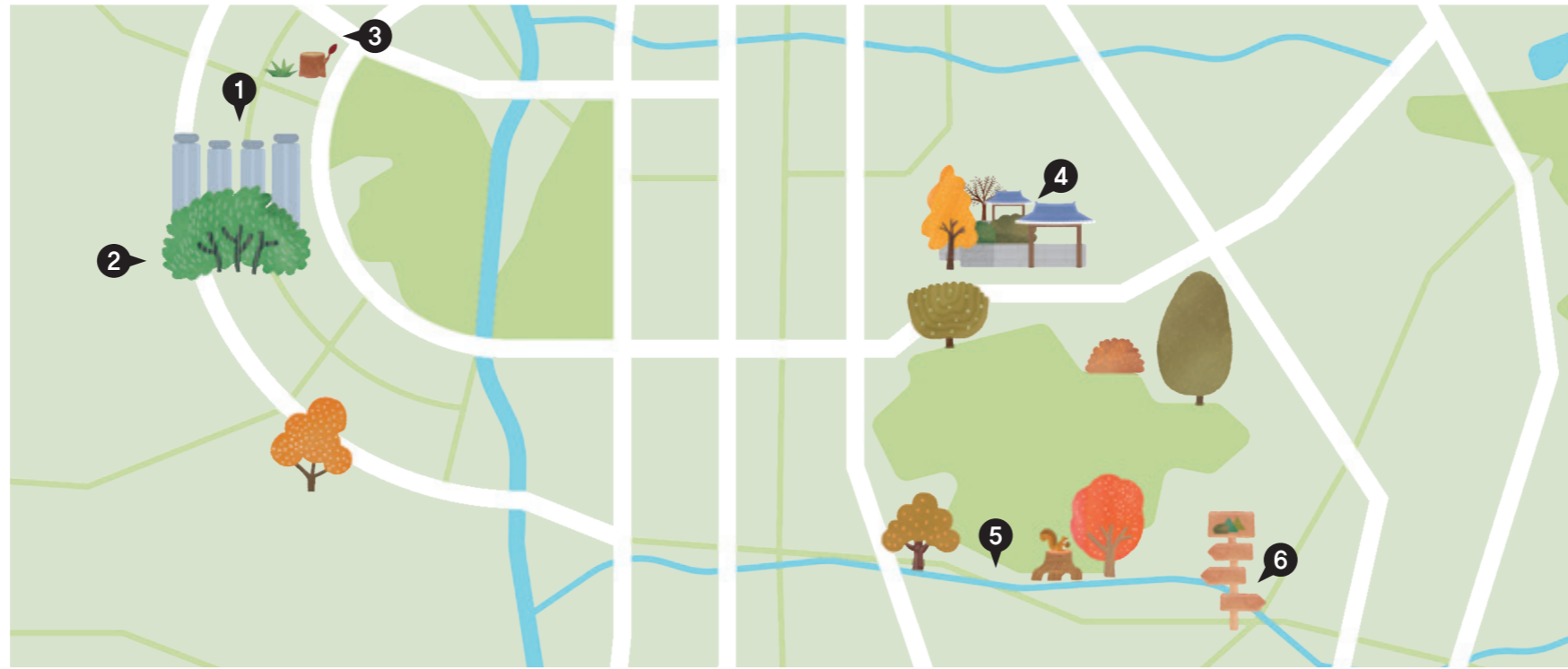
화성시민 여러분들이 화성시의 곳곳을
어반 스케치로 그려 보내주신 작품들을 담았습니다.



1 메타폴리스
유진희 시민작가 (@jinyi6003)



2 센트럴파크
최은아 시민작가 (@ibap_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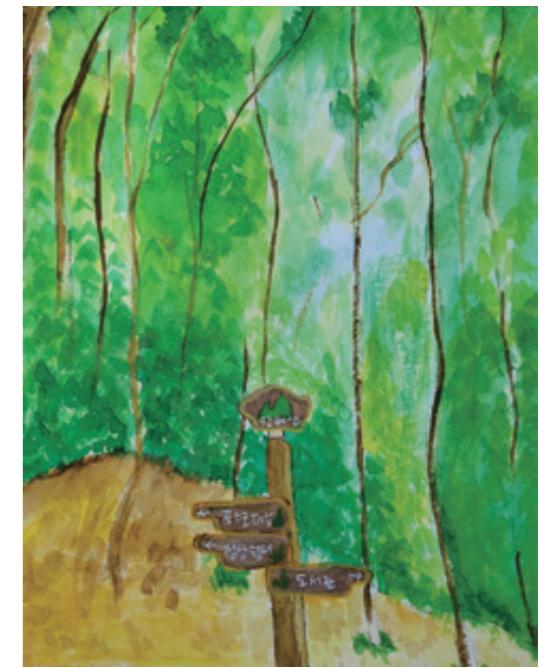
3 노작 홍사용 문학관
이애경 시민작가 (@snow_a_kyeong0528)



5 신리천
박혜미 시민작가 (@healingmama_)



4 청계중앙공원
서염미 시민작가



6 왕배산
홍지혜 시민작가 (@ja803)

시민 여러분이 직접 그린 우리 화성시 풍경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시민 작가님께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보내실 곳 hcfarm@naver.com

수도권 어촌체험의 절대 강자,
백미리어촌체험마을

망둥이 뛰는 서해! 물어라! Mr. 망둥이!

‘봄 보리멸 가을 망둥이’란 말이 있다. 가을엔 망둥이가 제철이란 얘기가. 백미리어촌체험마을은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망둥이 낚시 체험의 명소다. 낚시대를 바다에 펼치기 무섭게 망둥이가 쭉쭉 낚여 올라온다. ‘그래, 물어라, 망둥이야. 오늘은 가볍게 100마리다!’

글·사진, 최주환

백미리체험마을

특성

- * B&B하우스(식당, 카페, 숙소)를 갖춘 어촌체험휴양마을
- *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주요체험

조개 캐기, 망둥이 낚시, 굴 따기, 고동 & 계잡이 등

문의 031-357-3379

주소 경기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210-35

상담시간 09:00~18:00

인스타그램 @/baekmiri_invl

백미리희망캠핑장

특성

- * 한국관광공사 지정 오토캠핑장 2호
- * 백미리어촌체험마을의 각종 체험프로그램 참여 가능

문의

0507-1488-6466 / 031-355-3364

주소 경기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210-24

상담시간 09:00~18:00

홈페이지 www.hopecamping.co.kr

놓으면 낚이는 ‘꿀잼’ 낚시, 하러 오세요!

마침 바닷물이 빠지고 있었다. 마음 급한 몇몇의 낚시대는 벌써 바다 속에 있었고, 일부는 채비 중이었다.

“우와~이게 다 망둥이예요? 생각보다 큰데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아마 11월쯤이면 팔뚝만 해질걸요.”
 “세상에~이게 다 몇 마리에요? 낚시대 넣은 지 30분 만에 이렇게나 많이 잡았다고요?”
 “이건 약과예요, 저기 저 사람은 어제 최고점 찍었답니다. 무려 300마리!”
 “저도 많이 잡고 싶은데, 혹시 잘 잡는 비법이 있을까요?”
 “망둥이는 이렇게 낚시대를 살랑살랑 흔들어서 주어야 잘 잡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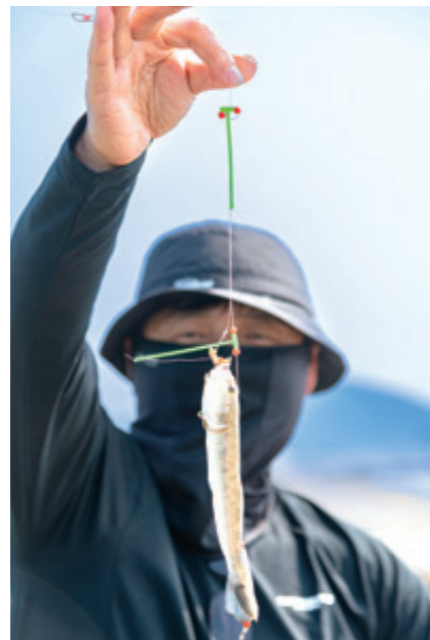
난생 처음이었다. 망둥이 낚시는, 그래서 질문이 많았다. 신난 아이처럼 주저리주저리 물었고 하나하나 배웠다. 누군가의 장담처럼 낚시대를 바다 속에 담그자 몇 초 지나지 않아 입질이 왔고, 잡아 올리기 무섭게 또 입질이 왔다. 툭! 툭! 툭!

백미리는 눈부신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아름다운 어촌이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체험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수도권 어촌체험의 절대 강자로 꼽힌다. 특히 갯벌과 갯골을 활용한 바지락 캐기 체험과 망둥이 낚시 체험이 인기 있다. 그 중에서도 망둥이의 씨알이 굵어지고 살집이 도톰하게 오르는 요즘에는 아이들까지 가세해 망둥이 낚시를 즐긴다. 까다로운 채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엄마도 아이도 손맛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망둥이 낚시는 낚시바늘에 갯지렁이를 끼워 바다에 풍덩 던져 넣은 후, 목직한 추가 바닥에 ‘덕’하니 닿는 느낌이 나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기만 하는 되는 것. 그러면 “식탐 많은 망둥이가 커다란 입으로 먹잇감을 덩석덩석 물어 낚시꾼은 그저 낚아채기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주말 이곳에서는 200여 명의 낚시꾼이 바닷길에 줄지어서 망둥이를 잡는다는 소문이 들린다.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벌이는 잔치처럼 왁자해 대단하겠다.

바다뷰 가을캠핑도 이전 백미리마을에서!

체험 외에도 백미리엔 즐길거리가 많다. 화성의 해안을 따라 걷는 화성실크로드의 2코스(황금해안길, 전곡항~궁평항)가 마을을 지나고, 마을을 포함한 서신면 일대 해안이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지정돼 있다. 머리에 쓰는 감투를 닮았다는 감투섬을 비롯한 해안 곳곳의 바위지대가 단층과 습곡 같은 지질유산이다.

백미리에는 푸른 바다를 앞마당으로 둔 오토캠핑장도 있다. 40여 개의 아영장을 갖춘 캠핑장은 해질 무렵이면 붉은 노을 속에 잠겨 보다 로맨틱해지는 곳. 바다(갯벌)에서 잡은 망둥이와 바지락을 직접 요리해 바다를 바라보며 먹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 아니 화룡점정이다.



THE 하다

동행하다

56

Hello

대한민국 0.01%, 여러분의
취향저격하러 왔습니다.
얼렁뚱땅 상점 이세화 대표

60

People

당신의 책장 속 최애는?

62

List

시니어를 위한 여가 추천 리스트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돌안돌안 인형극단

66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70

Letter

독자엽서

71

Place

배포처 및 구독 안내

대한민국 0.01%,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하러 왔습니다.

얼렁뚱땅 상점 이세화 대표

통닭천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튜버이자 온라인몰 얼렁뚱땅 상점의 크리에이터인 이세화 대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공간을 직접 찾았다. 친근하면서도 독특하고 유쾌하면서도 진중했던 이세화 대표, 만렙 매력을 뽐낸 그와의 시간을 지금 공개한다.

글. 노유찬 사진. 얼렁뚱땅 상점 제공

당신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통닭천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유튜버이자, 얼렁뚱땅 상점이라는 온라인몰을 운영 중인 이세화라고 합니다. 얼렁뚱땅 상점은 의류와 잡화를 전문으로 하며, 재미에 위트를 가미한 제품들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닉네임인 통닭천사도 상당히 재밌어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나요?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 방송 게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용할 닉네임이 필요했고, 그 전에 저녁 식사로 치킨을 시켰는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착한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렇게 통닭천사로 정해졌습니다.

얼렁뚱땅 상점은요? 알려주세요.

첫 시작을 1인 기업으로 시작했고 지금 기억해보니 홀로 보낸 시간만 2년이었네요. 그러다 보니 제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제품들 위주로 기획·제작된 결과물들로 채워졌고,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호불호 또한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얼렁뚱땅이라는 상호를 넣으면 소비자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기대치를 낮추는 대신 친근함을 강조한 거죠.

얼렁뚱땅 상점

홈페이지 uldd.net/home

인스타그램 [@uldd_store](https://www.instagram.com/uldd_store)

통닭천사

유튜브 www.youtube.com/@chicken_angel

인스타그램 [@chicken_angel](https://www.instagram.com/chicken_angel)





아트상품을 기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전문디자이너분들처럼 근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신 세상 사람들의 0.01%의 취향에 맞춰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저희 상점의 모토가 되었고, 소비자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협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겪는 고충도 많을 것 같고요.

있죠. 있어요. 유명 인플루언서 또는 아티스트 분들과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만의 색과 개성이 짙게 입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도 열령똥똥만의 색과 개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 힘에 부쳐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네요.

성공적인 협업 사례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본인의 굿즈인 하와이언 셔츠를 의뢰 주셨던 빠니보틀 님과의 협업이 생각나요.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디자이너분도 직접 선정해 모셔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분이 또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신지, 밤낮 가리지 않고 수정에 수정이 거듭되는 과정 모두를 즐겁게 해주셨어요. 꽤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정말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았던 프로젝트로 기억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2024 아트상품(굿즈) 제작 및 유통 지원사업'에 열령똥똥 상점이 굿즈 제작사로 함께 협업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전문 예술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에 가까운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재단에서 재밌게 풀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덕분에 큰 용기를 얻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협업에서 출시하게 될 상품들에선 어떤 차별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열령똥똥 상점은 저와 저희 상점을 잘 아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샵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마니아층이 두텁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2024 아트상품(굿즈) 제작 및 유통 지원사업'은 대중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대중이 원하는 그런 작업결과물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8명의 작가님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 굿즈 기획 등 여러 부분에서 신경 쓰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처음 작가님들과 만난 건 화성시문화재단 회의실이었어요. 그때는 서로가 낯설었을 때라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개성이 강한 분들이라.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한 분씩 직접 미팅하고, 회의 주제는 미팅 전 메신저로 공유하는 방법으로써요. 그 후 의견이 보다 풍성하게 모아졌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전해가더라고요. 현재는 8명의 작가님 마다 각자의 아트워크를 진행 중이고, 실제 상품으로 제작이 가능한지 또는 아닌지를 선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 팝업에서 관람객들이 주목할만한 품목이나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우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것. 재미까지 더해질 수 있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하나의 주제를 8명의 작가님들과 공유·제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공통 굿즈로 발전시켜나가 보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했어요. 아직은 완성 전이지만 말도 안 되게 큰 대형 에코백을 강추 아이템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겠네요.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상품들이 전시되는 시점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그즈음이에요. 계절에도 딱 좋고 활용성도 딱 좋고.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콘텐츠나 플랫폼에 도전해보고 싶은 계획은 없으세요?

얼마 전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국수 가게 사장님과 함께 이벤트를 했어요. 제가 워낙 자주 가기도 하고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사장님과 함께 이벤트를 해 번 당일 수익금에 저희가 개발한 공국수 먹는 개구리 캐릭터 티셔츠 판매 수익금을 보태 지역 보육시설에 기부했어요. 에어컨 자전거 비누 물티슈 등등이요. 돌아오는 길에 진심으로 감사해 주시던 원장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기도 하고 다음엔 더 제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먹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요.

《화분》 독자분들과 예비 창작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했으면 합니다. 다만 근성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해요. 멋진 거 안 멋진 거 웃긴 거 재밌는 거 상관없어요. 저를 예로 들자면 웃기고 재밌는 분야의 카테고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는 합니다.



당신의 책장 속 최애는?

책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당신의 책장 속 최애를 자랑해주세요!

공룡의 이동 경로

김화진

신수진 사무직

공룡의 이동 경로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네 명이 모여 친구가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다섯 편의 이야기로 다룬 연작소설입니다. 사람에 따라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다르기에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희, 솔아, 지원, 현우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은 늘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다. 마음이 갑자기 스스로 커지는 일, 커진 마음이 나를 잡아먹도록 내버려두는 일, 그건 짜릿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늘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종종거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이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며 우리 마음의 이동경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의미있는 삶을 위하여

알렉스 룽구

전소영 회사원

매일 회사, 집을 반복하며 별 생각없이 시간을 보내는 나였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고민했다. 이 책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어떻게 하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해주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가치, 의미를 통해 목표를 도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행동을 짜는 방식.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비전지도 작성을 하고 있다. 이제는 내 삶에 의미를 조금 더 더해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알 것 같다. 삶이 매일 무의미하게 반복된다면, 한번쯤 읽어보면 좋겠다.

모순

양귀자

최희진 주부

작가의 말에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마찬가지로. 풍요의 뒷면을 들추면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있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불행이 반복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모순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너무 부정적이게도, 너무 긍정적이게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내 삶을 살아나가다보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행복의 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읽었으면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

에픽테토스

최원주 회사원

제목에 이끌려 집어들게 된 책입니다. 살아온 시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던 것 같은 감정을 지울수 없었고 앞으로는 좀 더 나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지만 나를 챙겨가는 삶. 그리고 휘둘리지 않고 심지가 굳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타인 때문에 늘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여가추천 리스트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돌안돌안 인형극단



매주 화요일,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의 한 강의실이 북적인다. 아이 소리 듣기가 어려운 요즘, 까르르 웃고 재잘대는 아이들 풍경 앞에선 부쩍 마음이 푸근해진다. 소란한 아이들을 삼시간에 잠재우는 건 다른 아닌 무대다. 잠시의 암전 후 막이 오르자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다. 두둥, 하나, 둘 인형이 무대에 등장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글. 최정순 사진. 배호성



선배 시민이 지혜, 애정, 책임감으로 움직일 때

좌중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되지 가족이 집을 잘 지을 수 있겠죠?” 같은 질문엔 ‘때창 마냥 “네” 함창이 이어진다. 30분 남짓한 <염소할아버지와 꿀꿀이 삼형제> 인형극이 끝나자 무대를 배경으로 아이들과의 기념 촬영이 한동안 이어졌다.

공연이 한창인 무대 뒤편에서 구슬땀을 흘리다가 인형극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주인공들.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의 노인 전문 자원봉사단 ‘돌안돌안 인형극단’은 2022년 5월 창단, 현재 14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극단은 A, B팀으로 나누어져 운영되는데, 불가피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으로 공연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시스템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아동을 관객으로 모시고 인형극을 선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매주 공연과 연습을 포함한 자조 모임 형태로 진행되며, 연습과 공연 일정 등에 맞춰 공연 프로그램이 바뀐다. 기존의 인형극에 젠더 감수성을 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어린 관객에 걸맞은 공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돌안돌안 인형극단에 대한 입소문이 난 요즘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센터 등지에서 관람 신청이 쇄도해 연말까지 공연 일정이 가득 차 있을 정도다. 돌안돌안 인형극단의 정해월 단장은 극단의 흥하는 이유이자 팀워크의 비결로 단연코 ‘이해심’을 꼽았다.

“공연이나 연습할 때 발생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체 평가 등 의견을 나눌 때가 많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대화뿐 아니라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엔 팀을 위한 시간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담겨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성원과 함성

2022년 5월, 돌안돌안 인형극단의 첫 번째 공연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다. 그날을 회상하는 정해월 단장에게 벌써 웃음이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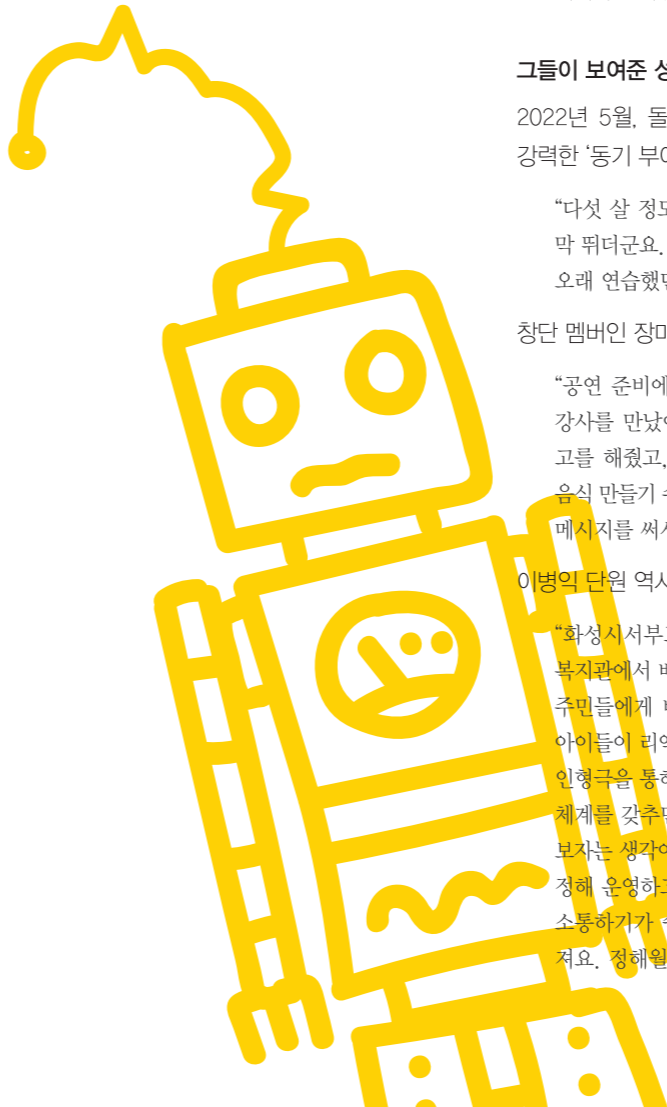
“다섯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의 리액션에 그냥 놀라버렸어요. 환호하는 모습에 가슴이 막 뛰더군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무대만 봐요. 함성소리가 들리는 중에 우리는 오래 연습했던 인형극을 하고 있고, 다시 생각해도 참 몽클해요.”

창단 멤버인 장미숙 단원에게도 그때가 또렷하긴 마찬가지다.

“공연 준비에 1년 정도 걸렸어요. 독학하다시피 극단 사람들끼리 연습하다가 좋은 강사를 만났어요. 그이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돌안돌안 인형극단에 대한 광고를 해줬고, 시립어린이집, 시청어린이집 등지의 아이들을 초대해 공연을 했어요. 음식 만들기 수업하고 감자떡을 쪄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만든 떡에 사랑한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써서 우리에게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잊지 못할 감동이에요.”

이병익 단원 역시 첫 공연의 감격이 꾸준한 활동의 계기가 됐다고 전한다.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이 100% 받기만 하는 입장이예요. 복지관에서 배운 가치 중 하나가 ‘선배 시민’인데, 시니어의 인형극이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인생 선배의 활동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인형극을 보는 아이들이 리액션할 때 쾌감이 있어요. 어찌나 집중해서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인형극을 통해 노인 공경, 양성 평등 등의 가치를 담아 전하려고 합니다. 연습과 공연 체계를 갖추면서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 등 지역 소외계층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부터는 단장 제도를 도입해 내부적으로 원칙과 규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어요. 극단 운영을 복지관에서 전담한다면 나이차가 나는 단원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리더가 있으니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요. 정해월 단장은 물론 복지관에서 애를 많이 써준 덕분입니다.”



좋아서 하는 인형극

돌안돌안 인형극단의 시작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의 제안이었다. 인형극단 모집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삼삼오오 모인 데서 현재에 이르렀다. 복지관에서 인형, 대본 등을 지원 받아 공연을 위한 기본을 갖췄고, 매주 모여 독학하듯 연습했다. 지금 같은 인력이나 무대 장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을뿐더러 홍보가 전무했으니 극단의 일정 대부분은 연습이었다. 공연은커녕 적지 않은 시간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는데, 혹 낙담하거나 실망할 때는 없었는지 정해월 단장에게 물었다.

“지치지 않았어요.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하고 싶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런 맘으로 모였어요. 만약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면 달랐겠지만, 극단 생활하는 동안 적잖은 사람이 드나들었어요. 그럼에도 저와 부단장 등 창단 멤버 넷이 굳건히 버티고 지켰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좋은 단원, 훌륭한 동료가 있다는 사실은 극단에게도 궁지가 돼요.”

흔들림 없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달이면 세 번은 공연과 연습, 한 번은 강의와 연습이다. 공연 프로그램이 바뀌면 기존의 인형과 무대를 손수 고쳐 탈바꿈하는 것까지 극단의 일이다. 장미숙 단원은 극단의 재활용법을 소개했다.

“인형 옷을 만들어서 바꿔 입히는 건데요. 복지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알뜰하게 하는 거죠. 극단에만 지원해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환경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고요.”

자원봉사부터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생 선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지혜와 사람에게 대한 애정,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모임에 참여하는 이가 늘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 또한 푹푹 묻혀 단단해졌다. 지난해 돌안돌안 인형극단은 요양원 봉사에 나섰다. 몸이 성치 않은 이들이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호응하면서 인형극 보는 즐거움을 전해주었던 그들 덕분에 봉사의 보람과 기쁨을 누렸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인형극 연습과 공연 봉사활동이 진행되는데, 연습 내용은 더빙된 목소리에 입, 팔과 다리 등 동작을 맞추는 대본 연습을 비롯해 시나리오 구상, 대본 녹음, 소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그래서 돌안돌안 인형극단에게 기본 중의 기본은 연습이라는 공동의 약속이다. 약속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동료를 기다리며, 단원은 수시 모집 중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복지관 회원,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봉사에 대한 열정, 타인과의 협동과 소통 능력, 꾸준한 참여와 학습 의지 등이 조건이다.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인 만큼 돌안돌안 인형극단이 공연에 담고자 하는 가치와 메시지는 '노인 공경'과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이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지금의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세대 간 소통하는 방식과 서로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돌안돌안 인형극단의 목표다. 첫 번째 인형극에서 본 아이들의 집중한 눈빛, 이야기에 빠져든 몸짓과 목소리가 단원들에게 감동의 기억으로 새겨졌듯 인형이 들려준 이야기와 무대 뒤편에서 흘린 인생 선배의 굵은 땀방울은 미래 주역에게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소식

성수동 팝업스토어 참여작가



담보
dambo_art



리곡
leeg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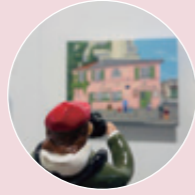
버리
by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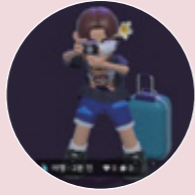
아마즈
amaz



이종호
2jongho



강지
kangzi



권홍
noah_kwon



담다
wwwkj7789

성수동에서 만나는 화성 예술의 재발견: 화성시문화재단 아트굿즈 팝업스토어

2024년,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가들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아트상품(굿즈)으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지역 예술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예술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아트상품은 일상의 한 조각이 되어 지역 예술가의 이야기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과 트렌드의 교차점에서 시작됩니다. 희소성을 중시하는 MZ세대와 키덜트 문화의 강력한 흐름 속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창의적 에너지를 굿즈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선정된 8명의 예술가들은 각자의 개성이 담긴 아트상품을 제작하며, 이 과정에서 제작, 유통, 마케팅 전반에 걸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시 일정 및 장소

11월 20일(수)~24일(토) @ 스테이지35

그리고 그 결실은 11월 20일(수)부터 24일(토)까지 서울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팝업스토어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예술의 중심지 성수동에서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를 선보일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감각적인 굿즈와 함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며 그들의 예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여정에 동참해보세요.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성수동에서 만나요!

〈2024 화성메세나〉 반도문화재단×이와삼공작소 벽돌로 쌓아올리는 추억의 놀이터 〈Brick Playground〉展

도자기로 만든 벽돌로 쌓아가는 따뜻한 추억의 공간 〈Brick Playground〉 전시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화성시문화재단과 반도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본 전시는 일상 속의 평범한 벽돌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해 관람객에게 독특하고 감동적인 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Brick Playground〉는 도자기로 만든 벽돌을 쌓아올리며 일상 속에서 잊혀진 추억과 감각을 되살립니다. 놀이의 상징인 벽돌이 예술작품으로 변모하며 관람객은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이 어떻게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며 도자 벽돌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감성을 전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Brick Playground〉 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시 일정 및 장소

- 1차 전시 2024년 9월 27일 ~ 10월 20일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갤러리
- 2차 전시 2024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용문유보라이비파크
- 3차 전시 2024년 10월 30일 ~ 11월 17일 @ 제부도 아트갤러리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세요!

- 벽돌화분 만들기 체험
10월 13일(일)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뽕따먹기 체험 & 벽돌화분 데코
10월 26일(토) @ 용문유보라이비파크



독자엽서

이야기 하나.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다원이음터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보통 ④좋지 않다 ⑤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화성의 가을을 기다리며 '여반 스케치'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여반 스케치를 시리즈로 연재해주시면 좋겠어요.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분 편집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의 소식을 정감가게 그리고 세세히 전해주셔서 우리 고장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야기 둘.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우편으로 만났어요.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매우 좋다 ②좋다 ③보통 ④좋지 않다 ⑤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THE가다의 비건 카페 콘텐츠가 좋았습니다. 카페투어를 좋아라는 일인으로서 다양한 카페에 관한 관심과 팁까지 좋았습니다.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가을이면 왠지 시나 문학과 관련한 작가와의 만남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분을 통해서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거나 소개받을 수 있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2024 화성문화재단 화분 독자 만족도 조사

《화분》에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독자와 함께하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겨주신 모든 의견을 취합 후 분석하여 앞으로 제작되는 《화분》 기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늘 독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장하는 《화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
설문기간 2024년 11월 21일 까지
설문내용 콘텐츠 내용, 디자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당첨발표 2024년 11월 말(당첨자 개별 연락)



화성시문화재단 독자만족도 조사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화성시문화재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문자메세지를 전송드릴 예정입니다. ※ 설문 제출 시 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화분

VOL. 64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 031-8015-8112

작은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호텔

- 라비돌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 갤러리문화아지트
- 신자연주의공방
- 공방 7보다
- 서울건치과

문화시설

- 노작홍사용문학관
- 화성ICT생활문화센터
- 모두누림센터
- 유앤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카페

- 다락
- 다원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차마시는들
- 카페오카페
- 카페 라온트리
- 디안
- 섹션

배포처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 제부도 아트파크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왕배푸른숲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괴도서관
- 서연이음터도서관
- 송산도서관
- 송림이음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 노을빛도서관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배송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웹진 내 구독신청 또는 편집부로 문의 바랍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 공연장 활성화 사업 선정 공연

화성시문화재단
2024 기획공연

그들의 논쟁

2023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상 수상
최상철 현대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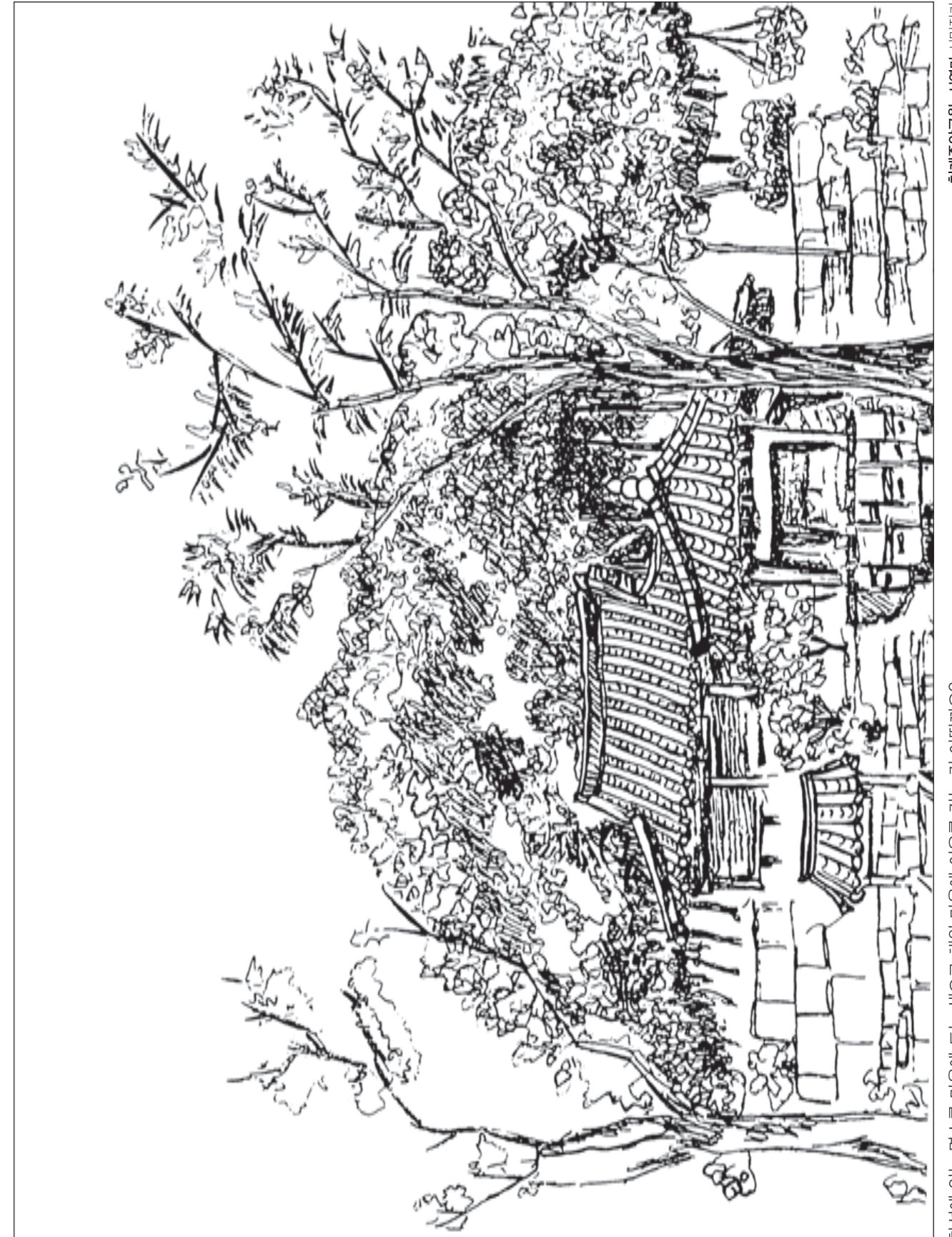
&

혼돈 Chaos



2024.11.30(토) 15:00, 19:30 화성아트홀

주최 |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 최상철 현대무용단, 화성시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티켓 | 전석 20,000원 연령 | 만 7세 이상 문의 | 1588-5234



나만의 상상력으로 색을 채운 후 11월 21일까지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기재 필수) 보내실 곳 : hcfsart@naver.com

참게중앙공원 서연미 시민작가

화성에 있는 명소를 마음에 드는 색으로 채워 마음에 여유를 갖는 건 어렵까요?
완성된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농지를 사용합니다

ISSN 2671-6445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가 출범합니다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화분

